

사순 제2주일

제1독서 : 창세 15, 5-12, 17-18

제2독서 : 필립 3, 17-4, 1

복 음 : 루가 9, 28-36

순정이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필립 3, 20)

강론

우리가 맞는 사순절은!

(믿어주고 믿음에 보답하고)

한병헌 신부/상삼례성당

“나는 미국의 홉킨스 대학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대학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까닭은 대학 당국이 학생들을 철저하게 믿고 최고 신사로서 대접한다는 사실에 있다. 나는 그 학교 대학원에서 삼 년 동안 공부하면서 여러 번 시험을 쳤으나 시험 감독이라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답안을 작성하는 세 시간 동안 화장실에 가도 좋고 머리를 식히기 위해 찻집에 다녀와도 좋다고 하였다.

홉킨스 대학의 도서관은 하루 스물네 시간 문을 열어 놓았다. 도서관 직원들이 퇴근한 뒤에도 열람을 허용했으며 대출도 가능했다. 책 뒤에 꽂힌 대출카드에 날짜와 성명을 기입하고 담당 직원 책상 위에 놓아 두면 직원이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여 알아서 처리한다. 그렇게 개방적으로 운영해도 도서관의 분실률은 다른 대학에 비해 낮다고 들었다.

사람을 믿는다는 것, 사람을 믿어도 좋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우선 먼저 사람을 믿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믿음을 받는 사람은 그 믿음에 보답해야 한다.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게 되면, 다음부터는 믿지 않을 것이다.”(‘아름다운 사람들의 밝은 이야기’ 좋은 생각 3월달 중 김태길님 글중에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에 관한 말씀을 들었다. 흔히들 이 부분을 예수께서 장차 당하실 수난과 죽음 뒤의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는 말씀이라고들 한다. 또한 예수님 부활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었던 것은 예수께서 온전히 인간으로서 당하신 수난과 죽음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들 말한다.

믿음에 있어서도 조심스럽게나마 마찬가지로의 논리를 한 번 펴도 되지 않을까 싶다. 인간과 인간과의 신뢰와 믿음이 근본적으로 바탕에 깔려 있을 때 주님께 대한 믿음 역시 더욱더 성숙되고 온전해 지고 마치 건강한 비둘기의 양날개처럼 조화를 잘 이루어 내지 않을까 싶다.

소리

작은 촛불이라도

나라에는 국회가 있고 도에는 도의회가 있고 시·군에는 시·군의회가 있다. 그리고 성당에는 사목회가 있다. 그럼 초·중·고등학교에는 무엇이 있을까. 학교운영위원회가 있다. 물론 국회처럼 권한이 막강하지도 않고 지방의회처럼 의결기관도 아니다. 마치 사목회가 자문기구인 것처럼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라는 좁은 울타리 안에 있는 심의기구에서 지나지 않는다.

그동안 학부모들은 학교에 하고 싶은 말이 태산처럼 있어도 차마 못하고 자식말긴 죄인으로 그저 잘 봐달라고 부탁하는 것 외에 달리 방도가 없었다. 교사들은 교장이 시키는대로 묵묵히 따라야 하니 신바람이 날 리가 없었다. 지역 주민들은 그저 굶이나 보는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교육이 모두의 불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학교를 시장에 빗대어 말하자면 수요자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상품(교육)의 질이 좋을 리 없다. 그래서 생겨난 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지역인사 대표로 구성되는 학교 운영위원회다.

학교 예·결산, 수학여행, 교복과 체육복 선정, 급식, 방과 후와 방학중 교육 활동, 교과서 선정은 물론 학교장과 교사를 초빙하는 권한까지 행사하는 학교도 있다. 학교 발전, 기부금도 모을 수 있다. 그리고 교육감과 교육위원회도 이제는 학교운영위원회 대표로 구성되는 선거인단에서 뽑는다.

피부에 와닿는 교육 개혁을 원한다면 이렇게 중요한 학교운영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지 않을까. 어둠을 원망하기 보다 작은 촛불이라도 켜는 게 낫다는 말이 있다. (연)

순정이 산책



성서의 오솔길

아모스서

박찬길 신부/사목국장

아모스는 남왕국 유다 베들레헴에 이웃한 드고아 출신으로 양을 치는 목자였으나,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북왕국 이스라엘에 건너가 예언 활동을 한다. 이 시기는 대략 기원전 760년부터 750년 사이이며, 북쪽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중이었다. 예언자는 여로보암 2세의 정치와 종교적 타락을 공박하였다. 사회가 심각한 불평등과 불의에 병들어 있었고 종교는 통탄할 만큼 형식적이고 획일적이었다. 베델에서 거행되는 경신례는 이교도 냄새가 물씬했고 부도덕하기까지 했다. 예언자는 “정의의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라. 서로 위하는 마음 개울같이 넘쳐 흐르게 하여라”(5, 24) 하고 시나이 계약을 일깨운다.

이어서 나오는 아모스가 본 다섯 가지 환시(7-9장)는 매우 상징적이며 재앙이 임박했음을 예고한다. 이것들은 사마리아의 함락, 왕국의 멸망, 이교도에 가까

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상류층의 유배생활을 예고한다. 아모스의 경고는 후에 무선은 현실로 나타난다. 결국 사마리아는 722년에 함락된다.

다윗이 창건한 위대한 왕국은 이제 흔적 없이 사라질 운명이다. 두 동강 난 왕국은 서로 멸망으로 치닫는다. 먼저 북왕국이 멸망하고 그 다음 남부가 패망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하느님은 “다윗의 집을 재건하리라”(9, 11-15)고 약속하신다.

아모스는 왕국의 불길한 미래를 예고할 뿐 아니라 하느님께서 “무너진 다윗의 초막”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리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예언을 끝맺는다.

아모스는 자신의 예언활동을 기록으로 남긴 최초의 예언자이다.



1998년 성령의 해 “혹 떼려다가 혹 붙였어요!”

어느 피정에서 한 자매가 토로한 이야기가 기억난다. 영세한 지 1년 남짓한 자매였는데 자신은 영세를 하면 모든 것이 척척 다 잘되고 순풍에 돛단 듯이 삶이 흘러가리라 생각했는데 막상 영세를 하고 일년을 지내고 보니 이렇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천주교 신자가 되었으니 하다못해 직장에도 남들보다 조금 일찍 나가 이것저것 정리해 놓고 술선수범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남이 나에게 속상하게 해도 전처럼 싫은 소리를 할 수도 없고 손해보는 것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혹 떼려다가 혹 붙였어요!”라고 했다. 이렇게 불리한(?) 처지를 당하면서도 왜 그토록 무수한 사람들이 이천년 동안 그리스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면서 세상에서 바보 취급 당하는 것을 마다하고, 때로는 그것을 자신의 특권으로까지 생각하면서 살아왔고 또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그

것은 그들 마음에 바로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세상의 기쁨을 희생하면서까지 바라는 희망,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느님을 직접 뵈오리라는 바램이다. 예수님과 함께 이 썩어 없어질 육체의 장막을 벗고 부활하리라는 희망이다.

교황성하께서 말씀하신다. “마리아, 성령의 힘으로 육화되신 말씀을 잉태하셨고 그 후에는 당신의 전 생애가 성령의 내적 활동을 통해 인도되도록 허용하셨던 마리아를 우리는 이해에 무엇보다도 성령의 소리에 따라 순종한 여인, 고요하고 사려깊은 여인, 아브라함처럼 ‘희망을 거슬러 희망하며’(로마 4, 18참조)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였던 희망의 여인으로 명상하고 그 모범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제삼천년기 48). 희망의 어머니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기쁘고 은총의 대축제, 2000년 대회는까지 1년 9개월 23일 남았습니다.

익산, 군산 성요셉 노동자의 집에서는 근로자들을 위해 체불임금, 정리해고, 부당노동행위, 산업재해 보상등의 문제들을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전화 : 익산 (0653) 52-6949, 군산 (0654) 465-5715

숭정이 익스프레스 일반이사짐, 용달

사다리차 · 인부대기 · 포장이사

251-2024

☎ (0652) 246-2024

223-2024

이 한 주(토마)

효 자 쇼 파

의자수리 및 천갈이 전문

조 종 복(비오)

삼천동 성당 옆

☎ (0652) 223-4346

(휴) 011-656-4346

동서로 삼익피아노

피아노, 전자오르간, 전자악기 전문
종합악기판매장

김 태 우(알풍소)

황 진 숙(안젤라)

☎ (0652) 88-7717~8

동서관통로 다가교 입구

스포렉스 요육센터

척추관절 생체교정 요육
디스크, 좌골신경통, 요통, 두통

원 장 임 대 원(요셉)

물리치료사

영등동 동초등학교앞(우남상가 2층)

☎ (0653) 831-2952(사무실)

831-9326(자)

1998년은 “성령의 해”입니다.

잠깐

경애장학회 설립

교구에서 운영하는 학교법인 성심, 해성중·고교는 장학회를 설립하고 지난 2월 11일 성심여중고와 해성중고의 졸업식에서 장학생 8명을 선발, 고교생에게 2백만원씩, 중학생에게는 1백만원씩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 장학기금은 성심여고에서 41년간을 교사로 재직하고 2월 16일에 정년 퇴임식을 가진 김경애(골롬바)자매가 자신의 퇴직금 2억원을 교구에 헌납하여 이루어졌다. 정년 퇴임후에도 제자들을 보살피려는 김경애 자매의 정신을 기리는 의미로 경애장학회라 이름 붙여진 이 장학회를 통하여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교구·제 단체 소식

1. 빈첸시오 이사회 정기총회 및 1일봉사 : 3월 8일(일), 오후 1시, 빈첸시오양로원
2. 군산 사회교정사목 후원회 모임 : 3월 9일(월), 오전 10시, 나운동 성당
3. 교구 여성연합회 총회 : 3월 9일(월), 오전 9시 30분, 가톨릭센터
4. 성직자 묘지미사 : 3월 9일(월), 오전 10시 30분, 치명자산
5. 수녀연합회 : 3월 10일(화), 오전 10시, 가톨릭센터
6. 새사제 연수 : 3월 13일(금), 오전 10시, 가톨릭센터
7. 본당 사회복지분과 위원연수 : 3월 15일(일), 오전 10시, 가톨릭센터
8. 군산지구 혼인강좌 : 3월 15일(일), 오후 1시 30분, 나운동 성당
9. 포콜라레 모임 : 3월 15일(일), 오후 2시, 가톨릭센터 1층
10. 가톨릭 사진가회 모임 : 3월 15일(일), 오전 7시 가톨릭센터 출발, 회원수시모집
11. 사순절 피정 : 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 약우회, 교장회, 사제부모회, 배례회, 3월 29일(일) 오전 10시, 치명자산 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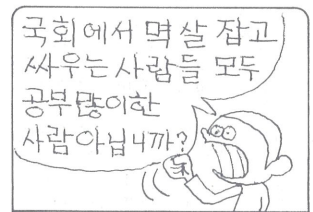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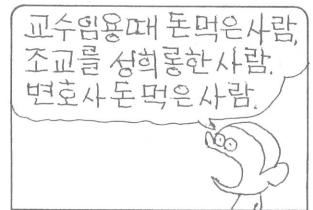
궁금해요

고백성사를 볼 때 간단하게 죄를 고백하라고 하던데,
어느 정도 간단히 해야 할까요?

현재 우리 나라 실정을 살펴보면 신부님에 비해 신자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고백하는 사람이 5분~10분씩 고백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성사를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사람에게 요점만 간단히 얘기하기를 권고합니다. 장황하게 변명까지 섞어가면서 고백을 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면, "자녀를 때렸습니다"라고 하면 될 것을 "사랑해야 될텐데, 이놈의 자식들이 말을 안 들어서 마구 때렸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시키는 것이 될 것입니다. 또 "시어머니를 미워했습니다"라고 고백하면 될 것을 "시어머니가 괜한 신경질을 내고, 저를 며느리 취급을 하지 않아서 미워했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자신의 죄보다 시어머니의 죄를 고백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요점만 간단히 고백하라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죄를 제대로 성찰, 회개, 결심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그저 '주일미사 몇 번 빠졌습니다'하고 끝내버리는 준비되지 않은 성사는 보지 않은 것만 못할 것입니다.

요심이 (1283) 김병호



결혼의 시작
매종 프랑세스
에서 준비하세요
유럽특유의 고품격 웨딩샵
- 다양한 가격의 웨딩드레스
- 이미지 메이크업, 웨딩메이트업
- 피부관리 전문
이 지 연(테레사)
덕진광장 앞
☎ (0652) 251-1210, 1211

교회소식에 관심을 갖는 것은
하느님 일에 관심을 갖는 것입
니다.
가톨릭신문전주지사
이관영(토마) · 김현자(말가리다)
구독신청 및 채구입, 광고문의는
☎ (0652) 85-1275
(야) 245-0569

LG 에어컨 예약
98년 신제품 15% 할인+10개월
무이자 할부
기본 설치비 무료+사은품(선풍기)
할부 대금은 4월부터 불입
97년 모델 25% 할인
원 승 연(도밍고)
☎ (0652) 241-2000

**전주문구센터
NEO DADA**
1층 악세사리, 팬시
2층 하용품, 사무용품, 컴퓨터소모품
3층 화방용품, 제도, 측량전문용품
전북대앞 본점
원수관(야고보) · 심경이(마리아)
☎ 77-0079 FAX 77-0720

종합화장품
프리본화장품
아름다움의 세계로 오세요
조 속 경(루시아)
오거리 한일은행→시집가는 날 사이
☎ (0652) 254-9418

축 개원
북일피아노학원
음대 피아노 전공
나 의 영(루시아)
안골 현대APT앞(구 현대피아노)
☎ 242-3284

서전주지구 본당소식

삼천동 주임신부 225-0397 사 무 실 225-0396 주임신부 오 성 기
F A X 222-4954 수 녀 원 226-3487 사목회장 심 성 택

◎ 회개, 보속, 기도, 사랑의 사순시기를 지냅니다!

- 모임: ① 바오로회, 베드로회, 등산회 - 교중미사 후
② M.E모임 - 9일(월) 후 8시
③ 자모회, 불랑회 - 11일(수) 전 10시, 후 8시
④ 사목회 상임위원회 - 13일(금) 후 8시
⑤ 울트레아 - 15일(주일) 교중미사 후
- 국악미사 연습: 매주일 교중미사 15분전 성가연습
- 건진자 특별교육: 12일(목) 저녁미사 후, 박찬길 신부님 강의
- 중·고생 특별강의: 14일(토) 후 3시 30분, 대회의실
- 여성 강좌 실시: 15일(주일) 후 1시 30분, 성에 대한 바른 이해
- 심자기의 길: 매주 화~금요일 미사 30분전에 기도바침
- 가정섬서 모임: 가정별 기도와 성서 읽기 요망
- 반주자 모임: 본당 성가반주에 봉사하실분 연락바람
- 교환시장 준비: 옷, 가전제품, 생활용품 등중고품 모집함
- 본당 공동체: 일치와 주인의식을 지니시길
- 교무금 월납제: 교무금 신립과 월납을 바랍니다.
- 금주 전례: 해설 - 박수환, 독서 - 강일영(다니엘) 부부
봉헌 - 신영태(프란치스코) 가정
- 차주 전례: 해설 - 기 철, 독서 - 백정안(스테파노) 부부
봉헌 - 김세중(루가) 가정

□ 지난주 봉헌금: 1,647,000원 □ 교무금: 3,279,000원

서신동 주임신부 74-9261 사 무 실 74-9260 주임신부 오 현 택
F A X 74-9260 수 녀 원 74-9262 사목회장 유 춘 웅

◎ 사순시기를 맞이하여 냉담교우 회두에 적극 참여합니다!

◎ 금주: 사제양성후원회 납부일

- 금주 모임: ① 울트레아 - 공식미사 후, 4회의실
② 등산회 - 후 1시, 성당에서 출발
- 주간 모임: 성령기도회 - 10일(화) 후 8시, 유아실
- 차주 모임: ① 꾸리아 - 공식미사 후, 지하성당(교육관) ② M.E모임 - 후 8시, 교육관 ※ 차주 - 교무금 납부일, 애령회 2차헌금
- 사순절 특강: 오늘 공식미사중, 김기곤(프란치스코) 신부님
- 심자기의 길: 주일 - 공식미사 30분 전, 평일 - 금요일 미사 후
- 부활 판공선사: 매 미사 후에 실시(공식미사 제외)
- 환자 봉성체: 13일(금) 후 1시부터, 수녀님
- 사순절 저금통: 각 가정에 배부된 저금통을 살펴주세요.
- 전입가정 환영!: ① 김진호(요한) T. 255-0349, 현대A 110-102
② 정근택(베드로) T. 251-1995, 잠금이 생선집
③ 윤진숙(펠릭스) T. 75-5094, 광진A 102-1005
④ 오연석(헤레나) T. 72-2244, 동아A 104-1504
- 부지헌금 감사!: 신립하신 교우님께서는 납부바랍니다.
- 독서: 금주(새벽) - 박성호, 송경애, 차주 - 정형철, 나유숙(공식) - 김종인, 이매란, 차주 - 이영주, 최은순
- 미사 안내: 금주 - 천사들의 모후Pr., 차주 - 평화의 모후Pr.
- 주차 안내: 금주 - 바다의 별Pr., 차주 - 화해의 모후Pr.

□ 지난주 봉헌금: 1,834,400원 □ 교무금: 2,844,000원

용머리 주임신부 88-3872 사 무 실 87-0441 주임신부 박 기 준
수 녀 원 81-0441 사목회장 이 규 세

◎ 주님께서 나의 빛 내 구원이시로다.

◎ 사순절 생활계획표대로 실천하고 계십니까?

- 모임: ① 등산 - 오늘 후 1시, 만덕산
② 울트레아 - 다음주 공식미사 후
- 판공성사: 미사 전 30분, 미사 후 1시간
※ 어린이 판공 - 21일 토요일 미사 후
- 사순절 저금통: 잘 살펴주세요.
- 매주 화요일은 가족과 함께 미사 참여해주세요.
- 심자기의 길: 매주 금요일 후 7시 30분
※ 사순절 특강에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가정 방문: 11일 수요일 후 1시 ※ 1구역부터 시작합니다.
- 유아 세례: 사무실에 신청해 주세요.
- 청소 봉사: 1, 2구역

□ 지난주 봉헌금: 1,116,600원 □ 교무금: 2,141,000원

화산동 주임신부 221-9843 사 무 실 221-9842 주임신부 이 성 우
F A X 221-9842 수 녀 원 225-3675 사목회장 서 동 호

◎ 주님께서 나의 빛 내 구원이시로다.

- 금주 모임: 요셉회, 안나회, 자모회, 대진회 - 낮미사 후
- 반석회: 10일(화) 후 8시
- 예비신자 교리: 10일(화) 후 8시, 11일(수) 후 8시
- 구역미사: ① 13일(금) - 동진2차 후 7시 30분
② 20일(금) - 거성화산 후 7시 30분
- 판공성사 안내: ① 중동부 - 14일(토) 후 4시 50분
② 고동부 - 20일(토) 후 4시 50분 ③ 초동부 - 28일(토) 후 2시 30분
④ 전신자 - 매일 미사전후 ⑤ 노약자 및 병자 - 4월 2일(목)
※ 사무실에 신청바람
- 차주 모임: ① 제대회 - 낮미사 후 ② 상지원 봉사 - 낮미사 후
- 청소 봉사: 14일(토) - 사랑하을 모후Pr.
- 폐품 정리: 14일(토) - 신비로운 장미Pr.
※ 폐품을 가져오시기 어려운 가정은 사무실에 접수 바람.
- 금주 전례: 새벽 - 박순옥, 낮 - 김영중, 저녁 - 정인자
- 차주 전례: 새벽 - 유희정, 낮 - 이영순, 저녁 - 이영숙
- 본당 공동체를 위한 기도회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철야성체조배 - 매주 목요일 저녁미사 후 ~ 금요일 오전미사 전
- 선녀머의 합창 음반대금을 정리해 주십시오.

□ 지난주 봉헌금: 955,540원 □ 교무금: 1,409,050원

□ 지난주 신축헌금: 3,615,000원 □ 성전신축 2차헌금: 384,250원

효자동 주임신부 223-3824 사 무 실 223-3821 주임신부 서 정 현
수 녀 원 223-3822 F A X 223-3821 사목회장 임 해 건

◎ 올해는 본당이 정한 「선교 실천의 해」입니다.

선교는 좋은 표양을 보이는 것이 으뜸의 방법입니다.

정감있는 언어와 모범된 행동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합니다.

- 금주 모임: ① 안나, 요셉회 - 오늘 9시미사 후
② 성모회 - 11일(수) 전 11시
③ 예루살렘회 - 14일(토) 전 11시
- 심서교리교실: 개강 - 10일, 매주 화요일
오전반 11시~12시, 오후반 8시~9시, 장소 - 교육관, 지도 - 주임신부
※ 쉬는 교우 및 기존교우의 재교육, 많은 관심과 참여바람
- 사순절 특강: 오늘(일) 9시, 10시 30분미사중
※ 강사 - 광주 엠마우스 회관 천노엘 신부님
- 환자 봉성체: 11일(수) 후 1시 30분
- 심자기의 길: 사순시기동안 매주 금 전 9시 20분
- 각 가정에 배부되는 사순쇄지를 정성껏 살펴주세요.
- 쉬는교우 가정방문: 12일(목), 상용A 2구역
- 이웃사랑기금: 22일부터 28일까지 3,155,000원 ※ 감사합니다.
- 미사안내 및 차봉사: 다음주 - 광진공작A 구역

□ 지난주 봉헌금: 1,448,670원 □ 교무금: 3,948,000원

효자우전 주임신부 221-3712 사 무 실 221-3711 주임신부 서 석 구
보좌신부 226-0443 수 녀 원 223-0715 보좌신부 강 영 근
F A X 226-1044 사목회장 박 영 근

◎ 성전 신축을 위한 목주기도 100만단 봉헌:

소계 - 3,080단 누계 - 850,345단

- 금주 모임: ① 애령회 임원회의 - 공식미사 후
② 요셉회 - 공식미사 후 ③ 상임 임원회의 - 저녁미사 후
④ 자모, 성모, 성심회 - 13일(금) 10시미사 후
- 애령회 가입과 회비 접수합니다.
- 성령 기도회: 9일(월) 후 7시 30분, 소성당
- 성체 강복: 11일(수) 10시미사 후
- 봉성체: 13일(금) 후 2시 ※ 환자모신 가정은 사무실에 접수바람
- 미납된 헌금(신축헌금, 전년도 교무금, 바자회 식권)은 속히 완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비신자 교리안내: ① 중고생 - 매주(일) 전 10시
② 직장인반 - 매주(수) 후 7시 30분
③ 주부반 - 매주(목) 전 10시 30분
- 축! 혼인성사: 오늘 1시, 신랑 - 김대영(토마), 신부 - 채성희
- 차주: 울트레아, 구역장, 제대회
- 금주 전례: 해설 - 김낙환, 독서 - 김용만, 김은숙
봉헌 - 정영환, 최영남 부부
- 차주 전례: 해설 - 이권우, 독서 - 김영길, 오순자
봉헌 - 유병환, 김성자 부부

□ 지난주 봉헌금: 2,151,350원 □ 교무금: 4,700,000원

“쉬고 있는 교우들께 숲정이를 전달합니다!”